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보 도 자 료 [2013. 6. 19.]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전화번호	042-481-4734
	담당자	안진영 사무관	F A X	042-481-475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 게재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우리나라의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음을 18일 확인하였다.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¹⁾는 해당 기록유산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18일 유네스코에 권고하였으며, 유네스코(사무총장 Irina Bokova)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 확정하였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제76호 ‘난중일기’는 이미 그 역사적 사실과 학술연구 자료로서 국내에서 높은 기록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워 기록유산으로서의 희귀성을 인정받았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동아시아 열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중요성에서 국제자문위원회의 등재심사소위원회(‘12.12월)로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을 예비권고 받은 바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심윤중)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UN에서도 인정받은 빈곤퇴치를 위한 모범사례로, 아프리카 등

1)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자문기구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

저개발국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이다. 국가발전의 한 모델로서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이 이번 등재 결정의 주요 평가사항이었다.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향을 살펴보면 옛날 고문서뿐만이 아닌 근·현대사 기록물의 등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재를 계기로 근·현대 기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 역시 한국식 발전 모델로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지만, 네팔·스리랑카·라오스 등 8개국 적용사례와 함께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강화된 보존전략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 순조로운 등재가 예상되었다.

문화재청은 2011년 8월 시행한 대국민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이 모두 신규 등재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9건의 기존 기록유산과 함께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등재 수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²⁾ 기록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2013년 6월 18일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100개국 292건이 등재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의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포함하여 총 54건이 신규로 등재되었다. 국가별 전체 등재 건수는 독일 17건, 오스트리아 13건, 러시아 12건, 폴란드 12건, 멕시코 11건, 대한민국 11건, 프랑스 9건, 중국 9건 등이다.

- 붙임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개요
2. 2013년 세계기록유산 신규 등재 경과
3. 신규 등재 세계기록유산 주요 평가
4.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현황
5. 사진 자료.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개요

- 명 칭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1992년 창설)
- 목 적
 -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 관 : 유네스코 정보사회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IAC)
- 신청자격 :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재 신청이 가능함(단, 심사대상은 국가별 2개까지-공동등재는 제외)
 - ※ 세계문화(자연)유산 및 인류무형유산 등재처럼 국가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 다만, 신청서 작성 및 심사대응의 효과성과 전문성 제고, 향후 등재된 기록유산 보존관리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주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신청대상 기록유산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됨
 -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 시청각 자료(음악 컬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 등재 기준

1.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2. 독창적(Unduplicated)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 되는 경우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 (1) 시간(Time) : 국제적 사건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2)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3)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4)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5)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 보조 기준(고려대상)

- (1)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2)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3)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협 요소에서의 안전성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4)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법률적 기준

- (1) 소유권 :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 (2) 접근성 및 저작권 :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 등재 절차(2014년 등재 추진 시)

등재 신청 대상 선정	○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유산 선정 및 신청서 작성 (문화재청)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공모 : '13.8월~9월 -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대상 선정 : '13.10월 · 청 내부 전문가 심사(1차 검토, 10월) · 세계기록유산 자문단 심사(2차 검토, 10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최종결정, 10월말)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 '13.11월~'14.3월
----------------	---



등재 신청서류 유네스코 제출	○ 제출기한 : '14.3.31.까지 ○ 제 출 처 :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 (사진, 홍보동영상 등)
--------------------	---



사전심사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등재심사소위원회 에서 사전 심사('14.11월~'15.2월)
------	--



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	○ 제출 익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최종 심사 및 등재권고 ('15.6월)
-----------------	--



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	○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 ('15.6월~7월)
-----------------	---

○ 등재 현황 : 100개국 총 292건 ('13년 6월 18일 기준)

※ 우리나라 : 총 11건(세계 5위, 아시아 1위)

- 훈민정음('97), 조선왕조실록('97)
- 직지심체요철('01), 승정원일기('01)
-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07), 조선왕조의궤('07)
- 동의보감(' 09)
- 일성록(' 11), 5·18민주화운동기록물(' 11)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13)

※ 일본 : 총 3건

(붙임 2)

2013년 세계기록유산 신규 등재 경과

□ 신청 개요

- 제출일자 : '12. 3. 30.(금)
- 제출대상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 난중일기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1592~1598) 7년 동안 전장에서 손수 쓴 진중일기(7책)
 - 새마을운동기록물 : 한국 정부와 주민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물 등 자료(22,000여 건)
- 제출자료 : 등재신청서, 사진, 영상물, 동의서, 권리양도서

□ 추진 경위

- 대국민 공모실시 : '11.8.17.(수)~9.16.(금)
- 공모기록물 심사 및 우선순위 추천(세계기록유산 자문단) : '11.10.11.
 - 1순위 : 난중일기, 2순위 : 새마을운동기록물
 - 3순위 :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4순위 :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조선의 금속활자
- 신청대상 기록물 최종 선정(문화재위원회) : '11.10.24.
 - 선정 기록물 : 2건(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 국문신청서 작성 : '11.11.23.(수)~'12.2.2.(목)
 - 난중일기 : 제장명 교수(해군충무공리더십센터)
 - 새마을운동기록물 : 하재훈 교수(성공회대학교)
- 국문신청서 검토 보고(문화재위원회) : '12.2.3.(금)
- 국문신청서 영문 번역 및 감수 : '12.2.8.(수)~3.20.(금)
- 홍보영상 제작 : '12.2.13.(월)~3.20.(금)
- '12.12월~'13.2월 :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

□ 최종 확정

- '13. 6월 : 국제자문위원회(IAC) 최종심사 및 사무총장 등재 승인
 - ※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심사 : 광주('13.6.18.~6.21.)

(붙임 3)

신규 등재 세계기록유산 주요 평가

□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한국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되는 이순신(1545~1598) 해군사령관이 임진왜란(1592~1598, 조일전쟁이라고도 부름) 기간 중 군중(軍中)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이 일기는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발발(1592년 1월) 이후부터 이순신이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 진정성(眞正性)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직접 먹을 갈아 붓으로 쓴 유일본이다. 일기를 쓴 후에는 각 연도별로 책으로 엮어서 보존에 충실을 기했다. 마지막 책인 무술일기의 경우 이순신 전사(11월 19일) 직전인 11월 17일 마지막 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전사 이후에는 종군 하던 큰아들 회와 조카 완 등에 의해 유품으로 전해져 이순신 본가에서 대대로 보관해 왔다.

이순신의 친필본 『난중일기』는 일제강점기에도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으며, 특히 이 시기에 일본 황족으로부터 『난중일기』의 양도 제의를 받았으나 13대 종손이 이를 거절하여 일기를 지켜낸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1962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기를 국보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소유자인 문중의 허락을 받아 문화재청 산하 현충사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 독창성 및 비대체성

일기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임진왜란은 외형적으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치러진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동아시아 세력 확보 목적이라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명(중국)나라의 패권에 도전하고자 했던 일본 막부세력의 동아시아 진출의 야욕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특히 전쟁에 참전한 일본과 명(중국)은 모두 서양에서 전래된 각종 총포 등의 무기들을 대량생산하여 이 전쟁에서 사용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세계최초로 알려진 장갑선을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유럽의 용병이 참전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 기간 중에 쓰여진 이순신의 친필본(親筆本) 『난중일기』는 개인의 일기 형식의 기록이지만, 전쟁 기간 중에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매일 매일의 전투 상황과 개인적 소회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다. 또한 전투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뿐 아니라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전하고 있어 당시의 자연지형 및 환경, 서민의 생활상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난중일기』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流麗)하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애송하는 시(詩)도 다수 삽입되어 있어 문학사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 세계적 중요성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임진왜란은 외형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3국간의 전쟁이었지만, 중국(명나라)의 용병으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 군사들과 일부 유럽에서 온 군사들도 참전한 기록이 있다. 더욱이 이 전쟁에서는 유럽 지역 국가에서 전래되어 일본에서 대량생산된 조총과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생산되어 중국에서 활용한 대포인 불랑기 포 등 무기류의 범세계적 범위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사연구가 스워프(Kenneth M. Swope)는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임진왜란을 “아시아 최초의 지역적인 세계전쟁 (Asia's first regional world war)”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임진왜란에 관한 전쟁사료 가운데 육전에 관한 자료들은 다수가 발견되지만, 해전에 관한 자료는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와 전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에서 임진왜란 해전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사료로 활용이 되어 왔다. 예컨대 ‘세계 최초의 장갑선(裝甲船)’이라고 알려진 거북선에 관한 기록과 전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의 도고 제독은 이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1905년 5월의 러일전쟁 시 대마도해전에서 이순신의 전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물리쳤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늘날 임진왜란 해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임진왜란 시기 해전사를 연구할 때 『난중일기』를 필수 인용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참고문헌에서 언급한 이 분야의 많은 연구 성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시간(Time)

- 근대 이전 한국 민족 최대의 전란(戰亂)으로 평가되는 임진왜란은 이 전쟁의 참전국인 일본과 중국 역시도 자국의 흥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전쟁 이후 침략국 일본의 정권은 풍신막부에서 덕천막부로 교체되었고, 구원국인 명나라(중국)는 국력이 쇠락하여 50년 후에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 『난중일기』는 바로 이 7년간의 전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책자이다. 특히 이 책자를 통하여 당시 해군의 활동상을 통시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7년간의 전쟁을 이 단일 사료를 보면서 시간적 흐름을 따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장소(Place)

- 『난중일기』에는 전투가 벌어진 현장, 그리고 기록자 자신이 수시로 방문해가면서 활동한 지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기에는 본인이 활동한 장소와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로 사람들을 만난 장소, 전투현장에 대한 지형조건, 해류분석,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실감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지리적 활동 범위는 한국의 남해안 지역(현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을 주 무대로 하여 서울과 충청도 지역까지 아우른다. 특히 이순신이 수군을 이끌고 주둔한 남해안 지역은 당시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공하기 위한 최대 요충지였다. 이순신은 이 지역을 봉쇄함으로써 일본군의 전쟁 전략을 무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일기에서 언급된 이러한 지명들은 그 구체적인 장소를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이 유적지 또는 전적지로서 의미가 부여되어 내·외국인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사람(People)

- 일본과 중국의 많은 인물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근대 시기 해군사령관이었던 도고 제독은 “조선의 이순신은 나의 스승”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 명나라의 당대 인물(예컨대 진린, 형개 등 명군 수뇌부들)들도 이순신의 능력과 충성심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에도 널리 알려져 영국의 발라드(Ballard, G.A)제독은 1921년에 이순신을 자국의 영웅인 ‘넬슨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최근에도 영국의 턴불(Stephen Turnbull)은 2008년도에 쓴 그의 저서에서 “이순신 제독의 해전승리들은 일본군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아울러 이 일기에서는 당대 유명 인물들의 활동상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동반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 조정의 최고위 공직자들 중 영의정 유성룡, 우의정 정탁 등을 위시한 대다수 고위인사들과 전쟁 지휘부인 도체찰사 이원익, 도원수 권율 등과도 직접 교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최고위 지휘부인 진린 도독, 유정 제독, 형개 제독 등의 일본군의 최고위 장수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오 키요마사에 대한 기록도 전하고 있다.

4. 대상 및 주제 (Subject and theme)

-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중에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이 자신의 근무지인 조선수군 진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주변 환경 등에 대해 기술한 개인사적 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기록이다. 이 일기도 여느 실기문학(實記文學) 작품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인간의 체험 중에서 확인 가능한 대상을 중심 소재로 하여 그 사실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일기 속에는 다른 일기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요와 작자 개인의 경험 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 이 일기에는 엄격한 군중생활과 국정에 관한 감회, 전투 상황의 묘사, 충성심의 표현, 백성들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효심, 명나라 내왕 요인들의 상황, 항복한 일본군들에 대한 시각과 활용내용, 전황의 기술, 기타 개인 신변잡기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5. 형식 및 스타일 (Form and style)

-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직접 전통 한지에 붓으로 기록한 친필 본 일기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필기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여 이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초서체 형태의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다. 또한 그 문장도 간결하면서 문학적으로 가치도 높아서 이 일기에 수록된 이순신의 시는 별도의 문학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체 또한 매우 아름다워 뛰어난 예술품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6. 사회적/ 의식적/ 공동체적중요성 (Social/ spiritual/ community significance)

- 『난중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한국 민족 최고의 영웅인 이순신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서 학생들의 교과서 및 각종 교양서적 등에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 『난중일기』의 내면에는 현대 한국의 정치가들 및 고위관료들이 지표로 삼는 청백리와 백의종군 사상이 깊게 흐르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애국심, 민족적 자긍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번역되어 일본이나 서구 등 전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요컨대 『난중일기』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의 삶의 영역에 퍼져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희귀성

『난중일기』는 400여 년 전 당시 전쟁의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군중의 상황을 기록하여 전해오는 일기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전쟁 상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기를 쓰는 것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아닌 민간의 일반 사가(私家)에서 14 세대(1세대는 30년 기준) 415년을 이어 보관해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기 속에 드러난 당시 군 내부의 비밀스런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이 시기의 제반 상황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비교하자면 당시 전쟁 상황을 기록한 일기 중에는 대부분 민간에서의 사회상과 민중의 생활상을 기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동종의 다른 일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군 관련 내용들은 다른 일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점들이 그야말로 『난중일기』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이자 차별성, 희귀성이다.

○ 원형성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기간인 7년간의 기록이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7년간을 매년 한 권씩 책으로 엮어서 그 해의 간지(干支)를 딴 이름을 책 표지에 붙여 만들었다. 비록 을미년일기(1595년 분) 1권이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이 일기를 토대로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일기에는 을미년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일기가 모두 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용의 구성 면에서는 거의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일기 중 전투 중이거나 이순신이 투옥되었을 때를 일기를 기록할 상황이 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기를 썼다고 볼 때 완전한 형태에 가까운 기록물이다.

□ 새마을 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새마을 사업 공문, 마을단위의 사업서류,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원고와 편지, 시민들의 편지, 새마을 교재,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약 22,000 여건의 자료를 총칭한다.

<새마을운동기록물 자료 목록 >

- 1)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기록물
- 2) 중앙, 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 3)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기록물
- 4)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편지
- 5) 시민·단체·기업들의 편지, 기증서
- 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산 기록물

○ 진정성(眞正性)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여 빈곤퇴치, 생활환경 개선, 영농의 과학화, 정신혁명, 리더십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 근대화의 증언이다.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 통합 보존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 마을 등이 생산한 기록물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원본이며 1차 자료이다.

○ 독창성 및 비대체성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식 발전 모델을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첫 걸음이 새마을운동이었다.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빈곤 퇴치, 농촌개발, 경제발전 등을 이룩했다. 특히 농가소득은 1970년 \$825에서 1979년 \$4,602로 급속히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마을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으며, 위생환경·생활공간·농업시설 등 농촌사회의 생활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당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전국 34,000 여 개의 마을에서 전개된 농촌근대화에 관한 종합적 기록이다. 이 기록물들에는 빈곤퇴치, 마을환경 개선, 새마을정신개발, 농촌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주민들의 리더십 개발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빈곤퇴치와 농촌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기구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원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129개 국가 53,000 여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새마을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UN세계식량기구와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은 빈곤퇴치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채택하였다. 또 2010년까지 18개 국가에서 157개의 새마을사업이 전개되면서 이 운동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새마을운동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세계적 중요성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관협력의 성공 모델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농촌의 빈곤 극복, 과학영농 실현, 여성의 지위 향상, 농촌근대화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하였다. 추진 과정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마을의 민주화를 앞당겼다. 특히 전국의 34,000여 개 모든 마을에 여성 지도자들을 한 명씩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리더십 개발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은 농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었으며 인류사의 중요한 경험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기아 극복, 빈곤 퇴치, 농촌 개발,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추구하는 국제개발기구, 개발도상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담겨져 있는 주민 참여에 의한 농촌개발은 국제사회로부터 효과적인 빈곤 퇴치 방안이자 대외원조의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UN 세계식량계획(UNWFP)은 2011년 5월 대한민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르완다와 네팔에서 '새마을사업(Saemaul Project: Food for New Village)'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는 2001년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UN 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UNWTO ST-EP FOUNDATION)도 2009년부터 아프리카 빈곤퇴치 사업으로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제개발원조의 모델로서 새마을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캄보디아, 르완다 등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대한민국 각지의 역사관과 전시관에 전시되거나 화보, 영상, 책자 등으로 제작되어 국제 교육과 교류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129개 국가 53,000 여명이 새마을교육을 받고, 2010년까지 18개 국가에서 157개의 새마을사업이 전개되면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이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 교재 및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1. 시간(Time)

새마을운동기록물은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전개된 대한민국의 농촌근대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1960~70년대 제3세계국가들에서 전개되었던 빈곤 극복, 농촌 부흥, 지역개발 등 경제개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잘 사는 농촌'을 실현했던 성공 사례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2. 장소(Place)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식민지배, 한국전쟁, '오일 쇼크', 남북한 대치, 극심한 식량부족 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의 34,000여 개 모든 농촌 마을에서 전개된 농촌발전의 역사적 기록이다.

3. 사람(People)

새마을운동기록물은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성공 스토리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의 열정과 공무원들의 헌신에 관한 기록이다. 빈곤과 저학력의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소득 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했다.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다른 농민들에게 전파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시민·공무원 등에게 새마을운동을 교육하는 시민교육자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던 여성들과 하층민들도 새마을지도자가 되거나 사업의 적극 참여자가 되어 마을 평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가난 극복에 대한 국가최고지도자의 의지는 연설문 원고와 대통령비서실 문서 곳곳에 남겨진 친필 메모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펼쳤던 공무원들과 농협 직원들의 노력은 각종 사업보고서와 마을 자료 등에 담겨져 있다.

4. 대상 및 주제 (Subject and theme)

1) 소득 향상과 과학 영농

새마을운동기록물은 공동작업 도입, 농로 개선, 경지 정리, 농기계 도입, 신 농법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과학 영농을 실현한 농촌발전사에 관한 기록이다.

2) 의식개혁과 정신혁명

정신혁명 없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불가능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농민, 여성, 새마을 지도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의타주의와 운명주의에서 벗어나 주인의식과 개척정신을 불러일으킨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에 관한 기록이다.

3) 주민 참여형 지역발전

새마을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자조 정신 때문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룩한 마을발전의 기록이다.

4)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

농촌 여성들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가했다. 남녀차별로 마을회의에서 제외되었던 여성들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로 선출 됨으로써 농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5.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문서자료, 녹음테이프, 사진 및 영상자료(릴 테이프), 원고 등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6. 사회적/의식적/공동체적 중요성(Social/spiritual/ community significance)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농촌근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잘 살아 보자'는 농민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열망과 자발적 참여 때문이었다. 농촌사회의 열망과 참여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잘 사는 마을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농민과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 희귀성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대통령, 정부 각 부처, 교육 기관, 마을지도자, 주민 등 다양한 운동 주체가 직접 생산한 종합적인 농촌근대화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연설문

원고와 서명이 수록된 행정문서, 농민들이 작성한 회의록, 새마을지도자들의 원고, 시민들의 편지 등 작성자들의 친필로 쓰여진 자료들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성공요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권자, 연구자, 마을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진다면 농촌근대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심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 원형성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원고 등을 원본 그대로 소장·관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관련해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이 생산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표적인 성공 마을들의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현황

유산명	등재 일자	유산 설명
훈민정음 해례본	'97.10.1	○ 1446년 음력 9월 간행된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대왕의 공포문과 집현전 학자들의 해설 및 해례 포함
조선왕조 실록	'97.10.1	○ 조선을 개국한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470여 년간의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
승정원 일기	'01.9.4	○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한 일기로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국정회의 상소사료들을 총망라하고 있음 ○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제외하고 1623~1910년까지 3천2백43책, 2억4천2백50만자의 방대한 기록물임
직지심체 요절	'01.9.4	○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 중 중요한 대목을 초록한 책 ○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으로 상하 2권중 하권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07.6.14	○ 1237년~1248년 경판 81,258장에 판각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불교 경전집.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대장경판전에 소장되어 있음
조선왕조 의궤	'07.6.14	○ 조선왕조(1392년~1910년)의 왕실 행사가 글과 그림으로 기록된 독특한 기록유산. 거의 4천권으로 구성
동의보감	'09.7.31	○ 17세기 초에 왕명에 따라 발간된 의학 백과사전으로, 동양의학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예방의학, 공중보건의 개념도 소개됨
일성록	'11.5.25	○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쓴 일기 형식의 기록으로, 재위에 오르기 전에는 일상생활과 학문, 재위에 오른 후에는 정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전 근대 시기 왕이 자신의 통치와 미래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담은 보기 드문 기록물
5·18민주화운 동 기록물	'11.5.25	○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27일)에 관한 문서, 사진, 영상물, 피해자 보상 등의 관한 기록물 모음
난중일기	'13.6.18	○ 임진왜란(1592년~1598년) 중 당시 해군 사령관 이순신(1545~1598)이 군중에서 직접 쓴 일기. 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무술일기 등 친필본 7책으로 구성, 국보76호
새마을운동 기록물	'13.6.18	○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로서 UN에서 빈곤 퇴치 및 농촌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1970년~79년)에 관한 정부 및 민간 문서와 관련 사진, 영상물 등 기록물 모음

(붙임 5)

사 진 자 료

난중일기 현황사진



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숙 정유일기	무술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현황사진 (새마을운동 중앙회 제공)

